

[오피니언]

데스크시각

김우성



'747,3000' 경제대통령을 표방했던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으로 내세웠던 숫자들이다. '747'은 '경제성장을 7%,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 강국 진입' 등을 달성하겠다는 것이었고, '3000'은 코스피 3000시대를 열겠다는 비전이다. 지난해 12월 한나라당 후보였던 이 대통령은 한증권사를 방문해 '정권교체가 되면 내년엔 주가가 3000(포인트)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 주가는 기업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주식에 투자한 분들은 그렇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다'고 덧붙이기까지 했다.

독선적 정책, 경제후퇴 불러

경기침체에 힘들어했던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고, 국민은 높은 지지를 보내줬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은 어떠한가. 올 경제성장률은 3%에도 못 미칠 것이라는

금융위기는 후보 시절에도 이미 터져 있었고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은 삼郤 동자도 할 수 있었던 일이다. 결국, 이 대통령은 불가능한 정책을 공약으로 채택 당선 후 '수치 관리'에 연연, 경제 불확실성만 키우고 말았다. 오죽했으면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이 "정부가 불확실성을 키우는 가장 큰 원인은 수치 목표를 설정하고 국가주도의 성장전략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달성하기 힘든 목표치에 대한 집착은 정책 일관성이 나쁜 소식일 뿐이다"고 지적했겠는가.

'747,3000'의 환상에 멍든 국민

국 진입도 연감생심이다. LG경제연구원은 1인당 국민소득을 지난해 2만 달러에서 올해 1만8천365달러로 추정했다. 2000포인트를 돌파했던 코스피 역시 3000포인트는 커녕 900포인트마저 불과됐다가 겨우 1100포인트를 회복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당시 이 후보의 말을 믿고 투자한 국민의 손실이 얼마나 클까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린다.

문제는 이런 경제 후퇴에 대해 정부가 정책적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대외적 요인에 돌리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서브프리미엄 모기지론 사태에서 비롯된 글로벌

한때 "노무현 스럽다"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다. 요즘 행정부, 여당을 중심으로 나라 전체가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 "이명박 스럽다"는 신조어가 나올 때가 된 듯싶다. 경제위기를 틀타 이 대통령이 자방정책, 경제, 대북정책 등 전 분야에 걸쳐 소신(?)을 유태기로 밟아놓고 각 부처 장관들은 이를 경쟁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지방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투자활성화를 명분으로 밀어붙인 수도권 규제완화는 그 단적인 예다. 수도권과 비

수도권의 국론분열이나 국토불균형적 폐

해 등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수도권 경기부양을 비롯한 부자감세 등이 망라된 '11·3 경제종합대책'이며, 종부세 개편은 또 어떠한가. '고소영·강부자 정권'이라며 그토록 비난을 받아왔음에도 부자에게 유리한 정책을 거침없이 추진해낸다.

제왕적 대통령 경계해야

이러니 수차에 걸쳐 내놓은 정부 대책이 악발이 벌컥 리 만무하다. 국민의 소리를 듣지 않고 밀어붙이기식 정책 추진이나 장관들의 일관성 없는 발언 등에 국민은 이미 심상해 있다. "IMF 때와는 다르다"고 했다가 실제 상황이 어려워지면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할 정도니 어느 국민이 신뢰하고 따르겠는가.

대통령은 기회있을 때마다 소통을 강조한다. 하지만, 어렵게도 상위 1~5%에 해당하는 좁은 소통에 불과하니 안타까울 뿐이다. 경제적 약자, 비수도권 사람들, 한반도 반쪽인 북측과의 소통은 왜 안 되는 것일까.

"이명박 스럽다"는 말은 제왕적 대통령의 다른 표현이다. 모든 국사를 좌지우지 하려는 욕구에 사로잡힌 제왕적 대통령은 21세기에 걸맞지 않은 모델이다. 국민의 큰 마음인 대통령이 경계해야 할 첫 번째 목록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정치부장〉 wskim@kwangju.co.kr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대설이라고 이렇게 절기에 맞추어 눈이 내리기는 실로 오랜만인 듯합니다. 차가 막히고 치워야 한다는 귀찮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어른들도 그리 싫지 않은 표정들입니다. 하물며 스카우트 스노우보드를 즐기는 사람들이야 내리는 눈에 대한 설렘과 반가움은 비할 데가 없을 겁니다.

마라톤 동호인들이 보스턴에 가고 싶어하듯 스카우트 역시 수준급에 오르면 가고파하는 곳이 있다고 들립니다. 미국 콜로라도의 크레스티드 브루트 리조트는 성공은 먼저 '산세'가 너무 험해서 안된다'라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설레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 '할 수 있다'는 신념을 버리지 않았기에 세계적인 명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눈을 맞으며

이 스카우트를 만들 때 콜로라도의 많은 도시들이 스카우트를 만들어 막대한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크레스티드 브루트 리조트는 아주 작은 마을이었고, 협약하고 가파른 절벽 위에 위치하고 있어 스카우트를 만들기에는 조건이 아주 좋질 않았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고민을 거듭하였습니다. 산을 깎을 것인지, 아니 흙을 펴다 경사로를 꾸밀 것인지 감론을 빠졌지요. 그러나 결국 자신들이 가진 천혜의 자연 조건을 그대로 이용하기로 했답니다. 험하고 가파른 절벽을 살려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스카우트 코스'를 만들기로 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산의 특성을 그대로 살린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스카우트 코스'를 만들었고 이 소식은 곧 도전욕에 불

광주일보는 '오피니언'면 기고 중 분기별 최우수작을 선정해 '은펜상'을 수여 합니다. 은펜칼럼은 이들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싣는 코너입니다.

장애인 영어 표기 'the differently abled'(다른 능력의 사람들)로

주요 건물이나 빌딩, 혹은 공공기관 화장실 등에 장애인을 뜻하는 영어 표기가 잘못 적혀 있는 것을 적잖게 발견한다.

예전부터 사용돼왔던 장애인을 뜻하는 공식적인 영어 표기는 'the disabled'였다. 하지만 이 단어의 의미는 '무능하게 된 사람' 또는 '불구가 된 사람'이라는 뜻으로 다소 격차하는 의미가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그래서 이들의 인권과 복지를 생각하는 차원에서 'a person with disabilities'라는 인격적 용어가 사용되기도 했다.

최근 장애인을 지칭하는 용어로 'the differently abled'(다른 능력의 사람들)이 있다. 장애인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담은 이

다는 스카우트 사이에 퍼져나갔습니다. 평범한 코스에 신물이 나았던 스카우트들은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스카우트'를 공략하기 위해 모여들었고, 수준급 스카우트들이 모여들자, 그들의 묘기 보기 위해 일반 스카우트들까지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일이 잘 되고 못 되는 데는 반드시 원인이 있게 마련입니다. 크레스티드 브루트 리조트의 성공은 먼저 '산세'가 너무 험해서 안된다'라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설레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 '할 수 있다'는 신념을 버리지 않았기에 세계적인 명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농협중앙회 차장 2005년 7월 수상자〉

기고

전학철



지난 6월 1일 광주시민들은 '2013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라는 낭보를 기대하며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결과는 6년 동안 준비한 3수생 러시아 카잔으로 결정되었다.

그로부터 6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결과론적인 '희생양 찾기', 감정적인 '흡집내기', 이성적인 '실패한 원인분석' 후 재도전 여부 결정', 건설적인 '유치 재도전' 등 혼란한 시간을 보냈다. 보다 큰 발전을 위한 진통의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한다.

10월 초에 광주시는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 재도전'을 선언했

다. 그 결정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광주시의 열악한 재정 및 환경 등을 생각한다면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함에도 지난 11월 19일에 있었던 문화체육관광부 국제행사 심의위원회에서 유치 예산 정부 지원 불가 등 조건부 승인결정은 정부의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후 광주시민의 열정과 의지를 확인한 강만수 장관 등은 국회 예결위에서 '2015년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 재도전'을 선언했고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의심하거나 불안할 필요가 없다. 여수 엑스포도 두 번째 재도전에서 성공했다. 강원도 평창 동계올림픽은 세 번째 도전하고 있다. 광주시의 저력을 다시 보여주면 된다. 2002 한·일 월드컵 4강 신화를 일구었던 열정과 행정 능력 그리고 전국체전, 비엔날레 등을 치르면서 보여준 시민들의 애향심(자원봉사 활동 등)이면 충분하다.

현재까지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에 대한 유치 의향을 공식적으로

나타낸 나라는 스페인 비고 등 3개 대륙 6개국 8개 도시다. 광주시는 유치를 100%로 잡담할 수는 없지만, 그 동안 약점으로 지적돼온 숙박시설은 특급 호텔 등을 새로 짓고 체육 인프라는 인근 도시의 체육 시설을 구축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준비해왔다.

〈광주시체육회 사무처장〉

U대회 유치로 광주 브랜드 제고를

다. 그 결정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광주시의 열악한 재정 및 환경 등을 생각한다면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함에도 지난 11월 19일에 있었던 문화체육관광부 국제행사 심의위원회에서 유치 예산 정부 지원 불가 등 조건부 승인결정은 정부의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생각한다.

광주시는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 재도전'을 선언했고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의심하거나 불안할 필요가 없다. 여수 엑스포도 두 번째 재도전에서 성공했다. 그의 결심은 600여점의 작품을 내걸어 관객과 만난다. 대형 유동점집이 늘면서 접포가 비어가고 있는 재래시장과 침체일로인 지역 미술계가 손잡고 활로를 찾아나선 것이다.

대인시장 아트페어에서는 작가들의 작업 모습을 보며 맘에 드는 그림을 구경하고, 시장의 물건들처럼 요령껏 흥정해 쌈값에 구입할 수도 있다. 참여자

가들이 제작한 신년 연하장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 뒤 수익금을 불우이웃돕기에 쓴다고 한다. 갤러리 같은 문턱 높은 곳에서나 볼 수 있었던 예술품들이 시장 물건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생활 현장으로 파고드는 '문화수도' 운동이 이뤄졌다.

대인시장은 지방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지방 경제가 죽으면 국가 경제도 없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위에 처한 국가경제를 살리는 길은 '선(先) 지방균형발전, 후(後) 수도권 규제완화'로 지방 이전 이유가 없어졌다는데, 정부는 경영여건 악화 때문만이 고여 얹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지방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지방 경제가 죽으면 국가 경제도 없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위에 처한 국가경제를 살리는 길은 '선(先) 지방균형발전, 후(後) 수도권 규제완화'로 지방 이전 이유가 없어졌다는데, 정부는 경영여건 악화 때문만이 고여 얹고 있는 것이다.

대인시장은 올해 광주 비엔날레에서 이미 '문화 장터'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졌다.

이곳에서 열린 '복덕방 프로젝트'에 3만여명의 관람객이 몰리면서 상가 매출도 당일 20~30% 뛰었다. 자생적으로 시장에 등장을 틀 지역 예술인들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쾌거다.

한 차례의 아트페어로 재래시장이나 미술계가 회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상상력과 열정을 무기로 뛰어 보면 생활 속의 미술시장으로 재탄생해, 문화수도 건설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오는 20일에는 그립 사례 대인시장을 찾는 시민들이 줄을 잇기 바란다.

無等鼓

법계 따라온다.

그래서인지, 그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오마하의 혼인' 웨인 베넷이 흡연한다. 빌 게이츠에 1위 자리를 내주고 있지만 두 말할 나위 없는 세계적 갑부다. 그가 어느 날 레스토랑을 찾았는데, 웨이터가 그에게 값비싸고 귀한 와인을 따르려 하자 손으로 잔을 가리며 '차라리 현금으로 달라고'고 했다는 일화가 있다. 그의 결소한 삶을 얘기할 때 인용되곤 하지만 투자의 재테크 역시 그에게

그리고 나머지 700만달러는 현금으로 갖고 있겠다고 했다. 그 역시 이익창출의 수단인 현금의 가치를 가장 높게 평가했다. 불황에는 뛰어난 투자를 하고 있어 회사가 회생하는 경우에도 예상한 대로 100만달러는 금, 등 원자재 관련 기업에 투자하고 100만달러는 미국 국가채권이 향후 떨어진다는 전망에 결코 놓쳤다. 그

리고 나머지 700만달러는 현금으로 갖고 있겠다고 했다. 그 역시 이익창출의 수단인 현금의 가치를 가장 높게 평가했다. 불황에는 뛰어난 투자를 하고 있어 회사가 회생하는 경우에도 예상한 대로 100만달러는 금, 등 원자재 관련 기업에 투자하고 100만달러는 미국 국가채권이 향후 떨어진다는 전망에 결코 놓쳤다. 그

리고 나머지 700만달러는 현금으로 갖고 있겠다고 했다. 그 역시 이익창출의 수단인 현금의 가치를 가장 높게 평가했다. 불황에는 뛰어난 투자를 하고 있어 회사가 회생하는 경우에도 예상한 대로 100만달러는 금, 등 원자재 관련 기업에 투자하고 100만달러는 미국 국가채권이 향후 떨어진다는 전망에 결코 놓쳤다. 그

리고 나머지 700만달러는 현금으로 갖고 있겠다고 했다. 그 역시 이익창출의 수단인 현금의 가치를 가장 높게 평가했다. 불황에는 뛰어난 투자를 하고 있어 회사가 회생하는 경우에도 예상한 대로 100만달러는 금, 등 원자재 관련 기업에 투자하고 100만달러는 미국 국가채권이 향후 떨어진다는 전망에 결코 놓쳤다. 그

리고 나머지 700만달러는 현금으로 갖고 있겠다고 했다. 그 역시 이익창출의 수단인 현금의 가치를 가장 높게 평가했다. 불황에는 뛰어난 투자를 하고 있어 회사가 회생하는 경우에도 예상한 대로 100만달러는 금, 등 원자재 관련 기업에 투자하고 100만달러는 미국 국가채권이 향후 떨어진다는 전망에 결코 놓쳤다. 그

리고 나머지 700만달러는 현금으로 갖고 있겠다고 했다. 그 역시 이익창출의 수단인 현금의 가치를 가장 높게 평가했다. 불황에는 뛰어난 투자를 하고 있어 회사가 회생하는 경우에도 예상한 대로 100만달러는 금, 등 원자재 관련 기업에 투자하고 100만달러는 미국 국가채권이 향후 떨어진다는 전망에 결코 놓쳤다. 그

리고 나머지 700만달러는 현금으로 갖고 있겠다고 했다. 그 역시 이익창출의 수단인 현금의 가치를 가장 높게 평가했다. 불황에는 뛰어난 투자를 하고 있어 회사가 회생하는 경우에도 예상한 대로 100만달러는 금, 등 원자재 관련 기업에 투자하고 100만달러는 미국 국가채권이 향후 떨어진다는 전망에 결코 놓쳤다. 그

리고 나머지 700만달러는 현금으로 갖고 있겠다고 했다. 그 역시 이익창출의 수단인 현금의 가치를 가장 높게 평가했다. 불황에는 뛰어난 투자를 하고 있어 회사가 회생하는 경우에도 예상한 대로 100만달러는 금, 등 원자재 관련 기업에 투자하고 100만달러는 미국 국가채권이 향후 떨어진다는 전망에 결코 놓쳤다. 그

리고 나머지 700만달러는 현금으로 갖고 있겠다고 했다. 그 역시 이익창출의 수단인 현금의 가치를 가장 높게 평가했다. 불황에는 뛰어난 투자를 하고 있어 회사가 회생하는 경우에도 예상한 대로 100만달러는 금, 등 원자재 관련 기업에 투자하고 100만달러는 미국 국가채권이 향후 떨어진다는 전망에 결코 놓쳤다. 그

리고 나머지 700만달러는 현금으로 갖고 있겠다고 했다. 그 역시 이익창출의 수단인 현금